

## 구약성서의 절기와 농사와의 관계

김치홍(목사, 강원 춘천 교동교회)

### 머리말

사람들은 긴 역사를 이어오면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나 결속력을 제공하는 ‘특정한 날들과 기간들’을 구별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축일 혹은 절기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나날들과 구별된 이들 절기들은 성서의 백성들에게서도 예외없이 관찰할 수 있다. 이 작은 글은 성서의 백성들이 구별한 이들 축일 혹은 절기들을 살피면서 그것들이 과연 어떠한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고 지켜져 왔으며 결국 오늘의 우리 현실(농촌교회라는 더욱 구체화된)에서 이를 여하히 볼 것인지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 1. 용어의 종류

넓은 의미에서 절기라는 용어는 ‘모에담(מועדים)’(RSV 는 appointed feasts)이라 한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유월절, 무교절, 첫 이삭 절기, 추수절, 새해맞이, 속죄일, 초막절 등이 언급된다. 또한 에스겔은 월삭과 안식일도 이 용어로 부르고 있

다(겔 45:17).

이와 함께 ‘하그’(חג) 라는 용어도 볼 수 있는데 앞서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연례적인 3대 순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을 지칭하여 쓰이고 있다. 이 용어는 유월절보다는 무교절을 가리키는데 쓰인다든지(출 12:14 ; 레 23:6 등) 정관사를 포함한 ‘그 절기’라 하여 초막절을 지칭하는 것(왕상 8:2) 등은 특별한 용례여서 학자들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월삭일, 안식년, 희년, 부림절, 그리고 후대의 성전봉헌 축제일(하누카) 등도 이런 절기에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다양한 절기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조율하고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해 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위치를 점했던 3대 절기를 중심으로 성서의 절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삼 대 순례절기

### 1) 유월절(혹은 무교절)

유월절은 ‘폐사흐’라 하여 ‘뛰어 넘어가다’는 뜻을 갖고 있다. 유월절을 살핌에 있어 아주 어려운 것은 이 절기를 무교절(하그 하마초트)이라 이름하여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들 호칭이 각기 별개의 축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며 세월이 흐르면서 출애굽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묶여진 것으로 본다(Wilson, 278쪽 이하).

이 별개의 두 요소는 언제부터 비롯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현재로써는 추적하기가 불가능 하지만 이 두 요소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것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없는 것 같다. 라이라스담(J. C. Rylaardsdam)은 가나안 사람의 농경축제라고 단언한다(IDB, Vol. 3, 164쪽).

이스라엘의 기원을 유목민에서 찾는 것에는 별반 이견이 없다. 엄원식 교수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관습과 예의, 사회적 기구와 종교는 모두 유목민의 삶에서 특징지어진 것”으로 평가하

고 있다(89쪽). 유월절에는 이렇게 아득한 시절부터 전승되던 이스라엘의 목축 경험이 깃들여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모세의 다음 말에 주목한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출10:9). 여기서의 ‘절기’가 오래 전부터 행해오던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아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고 가족끼리 먹어야 한다는 규정도 이런 옛 유목민적 습속을 배경으로 한다고 본다(엄원식, 127쪽).

여기에 덧붙여 무교절의 경우는 더욱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다. 첫째로는 이 절기를 지키는 아빍월에 대한 것이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이 그 해의 첫 달에 지켜야함을 말하며 13장은 그 달이 아빍월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말은 명백히 보리와 관계가 깊다(כֹּמֶץ, 출9:31). 유월절을 지키는 달의 이름이 이렇듯 보리 이삭과 관계가 깊다는 것은 유월절의 또 다른 이름인 무교절이 농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으로 제시할 만하다. 둘째는 레위기 2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유월절을 언급한 후 곧바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열납되도록 드리라고 규정한다. 여기서의 첫 이삭이란 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무교절은 보리 추수와 연결되어 나타나 있어 그 배경에 이스라엘의 농경사회 경험이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곁들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는 이 두 절기가 언제 하나의 절일로 묶여지게 되었는가하는 점이다. 벨하우젠(Welhausen)은 열왕기서(왕하 23:21-23)와 출애굽기(23:14-17)를 근거로 요시아 때에 비로소 두 전승이 합일되는 일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요즘 성서학의 일반적인 추세는 훨씬 앞당겨 이해하는 쪽이 우세하다. 라이라스담은 크라우스(Kraus)를 대표적인 학자로 소개하는데, 크라우스는 여호수아서를 근거로 사사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이런 일이 생겼을 것으로 추론한다(IDB, 668쪽). 유목민적 생활상을 보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곳의 농경문화에 접하고 그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두절기의 융합이 가능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성서의 최종적 형태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경전비평적 시각이다. 성서는 유월절의 이전 형태에 대해서는 미궁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출애굽 주제는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즉,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을 고통의 땅에서 구출하신 하나님께 철저히 시선을 맞추고 지킬 일임을 시종여일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윌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월절의 전역사(pre-history)가 정확히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이 축제는 이집트로부터의 기적적인 구출을 가져다준 이스라엘의 과거의 한 시점과 분리시켜 놓을 수가 없다”(278쪽). 복서(Bokser)의 말도 이와 같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고대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축일로 지켜지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자극하는 역할로 역사화되었던 것이다”(ADB, Vol. 6, 760쪽).

이렇듯 변용을 거듭한 이 절일은 신약공동체에 와서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철저히 유월절의 시각으로 해석되어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양으로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음을 언어 유희로 밝히고 있다. 족스(Jocz)에 의하면 신약공동체는 파스카(πάσχα)는 파스코(πάσχω)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한다: “주님은 유월절(πάσχα)양으로써 유대인에 의해서 합당한 제물로 희생당하셨다(πάσχω)”(691쪽). 그리고 나아가 죽음이 ‘넘어 간’ 부활의 절기로 이어져 그 긴 전승줄기가 끊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렐롯(P. Grelot)과 비에론(J. Pierron)은 “오늘날에도 빠스카(부활) 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의 탈출의 밤이요 승리의 밤이다. 그것은 우리를 당신 피로써 보호해 주시고 누룩이 안든 빵의 형상을 빌어 당신 살로써 우리를 먹여주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참된 어린 양의 축제이다”라고 말하여 유월절의 전승을 따라 주의 부활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152쪽).

유월절이 갖고 있는 농경사회의 배경은 이렇게 성서적 사건

으로 역사화되어 성서의 절기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

## 2) 칠칠절

칠칠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 두 번째로 언급되는 절일이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맥추절(מַקְצִיר הַבֶּרֶךְ)로 부르며 신명기는 오순절(16:10), 민수기에는 초실절(28:26)로 나타난다. 반더캄(Vanderkam)은 칠칠절이 다른 절일에 비해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음을 열거하고 있다. 정확한 날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월절 등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와 어떤 구체적인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절기 목록에서만 언급될 뿐 그 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출 23:16 ; 34:22, 레 23: 15-21, 민 28: 26-31, 신 16:9-12, 대하 8:13) 칠칠절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라이라스담은 레위기 23장을 넓게 이해하여 유월절과 연계시켜 안식일 후 첫 날, 한줌의 곡식단을 드린 후 7주간의 밀 추수 기간을 마감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보호아래 지켜지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의식(儀式)이었다고 평가한다(IDB. Vol. 4, 828쪽).

민수기는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첫 소산물로 떡 두 덩이로 요제를 드린 후(레 23: 17) 각 개인이 각자의 형편을 따라 제각기 새로 추수한 알곡으로 드리는 것이었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본다. 우리는 여기서 칠칠절이 봄철 추수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성서의 표현에 주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출 34:22). 이 절기의 특징은 이렇게 ‘영농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삶이 더욱 고단해지면서 칠칠절은 앞서의 성격보다는 이스라엘이 이 절일에 율법을 받았다고 변용되어 나타난다(히년서 등 참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겪은 고난을 되새기면서, 주어진 삶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어들이며 감사를 들이던 것이 이렇듯 새로운 상황에 직면

하여 의미 변화를 하는 모습은 앞서 유월절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 3) 초막절

보스만(Bosman)에 의하면 초막절은 맨 처음 연말의 추수감사제였을 것으로 본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수장절이라 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신명기 16장의 규례를 따라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으로 집중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 절기에 순례하는 형태로 변화를 주게 되었다고 한다(왕상 8:2 참조). 끝으로 레위기 23장 33절 이하의 설명대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광야 유랑을 기념하는 의미변화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의견은 현재의 최종 본문 뒤의 경전 전승과정을 전제하고서 행한 설명인 셈이다.

비평적 학자들은 초막절의 배경을 연구하면서 앞서의 줄거리에는 어느 정도 일치를 이루고 있다. 즉, 나중에 이 절기 또한 이스라엘 역사와 결합하면서 절기에 참여하는 회중으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로 태어나도록 자극, 격려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변용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포로기 혹은 그 이후로 돌리는 이들도 있으나 요즘의 견해는 시내산 계약(출24장), 세겜에서의 계약 갱신(수 24장), 요시야의 종교개혁(왕하 22-23장) 등을 근거로 아주 이른 시기부터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무튼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농경생활을 경험하면서 가나안의 원주민 문화가 유입되었고(사사기 21장에서 ‘여호와와 절기’라고 부르는 것을 참조) 더 나아가 이스라엘 신앙으로 재해석되고 실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후기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져 디아스포라들의 순례 절기로 자리 잡으면서 종말론적 환상을 제공하는 정도까지 발전한다. 스가랴 예언자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송

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14:16-18)고 예언하였다.

앞서의 예를 따라 참고로 덧붙인다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등으로도 번역되어 있다. 칠칠절이 초실절과 오순절로 개역 성서에 번역되는 것에 견주어 기억하는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주요 순례 절기들을 살피면서 의문으로 남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다름이 아니라 무교절 후 첫 이삭 단을 베어 주께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은 모두 보리 추수를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무교절은 쉽게 말해서 보리 추수와 관계가 깊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그 후의 50일이 바로 칠칠절인 바 이 절기는 밀 수확을 마감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박철우, 227쪽). 우리나라의 경우 밀과 보리의 추수가 거의 동시에 가능함을 알고 있기에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을 기대해마지 않으면서 필자의 한계를 고백한다.

### 3. 절기의 전승과정으로 본 의미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일이 3대 절기만이 아니고 이외에도 훨씬 다양하게 나타남을 전제하고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 즉, 절기의 배경을 이루는 농경문화의 흔적을 살피는 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서 거기에 한정하여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이를 다시 정리하여 말한다면 첫째로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상당히 뚜렷하게 농사와 관계 깊은 진술들이 깃들여 있다는 점이다. 유월절에는 옛적의 유목민적 경험이, 무교절에는 정주하여 농사짓는 경험이 스며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칠칠절은 보리 수확 시작과 밀 추수를 마무리하는 봄 농사철의 경험이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초막절은 가을 과일 추수, 특히 포도 수확과 관계가 깊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찰이라고 생각한다

(엄원식, 129쪽).

둘째로 이러한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와 만나면서 오히려 문자 그대로 배경으로 물러나고 역사적인 의미가 두드러져서 실천되는 그런 절기로 변용된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이런 절일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되 율슨의 표현대로 '역사를 먹는' 의식에 참여케 된다는 점이다(290쪽). 모든 절기가 다 뚜렷한 모습으로 역사적 정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 단연 돋보이는 절기라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이런 역사화 과정이 후대로 갈수록 활발하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을 떠받치는 기둥이 왕조와 성전이라면 국권을 상실하면서 두 기둥이 무너지고만 셈이다. 이런 공간을 메꾸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할 때 이들 절일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으리라 짐작하게 된다(안식일 등의 규례도 후대에 강조됨을 참조하라). 따라서 이 절일들은 단순한 휴일, 축제일이 아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선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멈추지 않았고 구약의 절기들이 새롭게 재해석되면서 성서의 메시지를 더욱 풍성하고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성서의 백성으로서, 농촌의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성서를 읽고 반응할 것인지 새로운 물음 앞에서 진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물음 속에서 성서의 절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접목, 응용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의 절기와 접목시키는 것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김진홍, 76쪽). 다만 앞으로 서양에서 유래한, 성서적 전통을 벗어난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은 배제하고 우리 옷을 입힌 절기로 거듭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



는 절기 변형이 일어나야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으로 글을 담  
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김진홍, 『여호와와의 절기』, 1996, 두레시대.
2. 박철우, 『레위기』, 1994, 전망사.
3. 엄원식, 『구약성서 배경학』, 1995, 침신대.
4. M. R. Wilson, 『기독교와 히브리 유산』 1995, 컨콜디아사.
5. P. Grelot, J. Pierron, 『구약과 신약의 빠스카』, 1968, 분  
도출판사.
6. IDB, Vol 3, 4.
7. ABD, Vol 1, 6. Doubleday.
8. NI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T Theology & Exege-  
sis), Vol. 2, 3. Zondervan.
9.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2권, 기독교문사.